

3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보고

제105회기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사업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배만석
서 기 성경선

1. 조직

- | | |
|---------------|-----------------------------|
| • 위 원 장 : 배만석 | • 부 위 원 장 : 김용대 |
| • 서 기 : 성경선 | • 회 계 : 이창원 |
| • 부 회 계 : 양호영 | • 총 무 : 오명현 |
| • 전문위원장 : 진용식 | • 전 문 위 원 : 이익희 김길성 심창섭 서철원 |
| • 연구분과장 : 서한국 | • 연구분과위원 : 김용대 오명현 |
| • 조사분과장 : 최윤영 | • 조사분과위원 : 양호영 김대원 김선웅 황한열 |

2. 회의

1) 전체회의

(1) 1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0. 10. 30(금)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

위원장 배만석 목사, 부위원장 김용대 목사, 서기 성경선 목사, 회계 이창원 장로, 부회계 양호영 장로, 총무 오명현 목사, 연구분과장 서한국 목사, 조사분과장 최윤영 목사, 전문위원장 진용식 목사

② 전문위원장을 실무임원회에 참여시키기로 하다.

③ 전문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정기로 하다. 교수전문위원 서철원, 심창섭, 김길성 일반전문위원 김종한, 고광중, 주기수, 신현욱, 강선유, 황의중

④ 분과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정기로 하다.

연구분과위원 김용대, 오명현
조사분과위원 양호영, 김대원, 김선웅, 황한열

⑤ 이대위 회의비와 연구비를 추가로 7천만원 청원기로 하다.

⑥ 차기임원회 11월 18일(수) 오전 11시에 소집기로 하다.

(2) 2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1. 4. 20(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조사분과의 건(방춘희 원장, 쿼어신학, 김병훈, 노승수 목사의 건, 송명덕 목사, 전광훈 목사)



- 은 6월 중에 보고받기로 하고 전문위원들과 서로 협의하여 보고받기로 하다.
- ② 다락방(류광수목사)건은 전문위(교수포함)에 맡겨 연구 후 전체모임에 보고하기로 하다.

(3) 3차 전체회의

- ☞ 일 시 : 2021. 7. 19(월) 21:00
- ☞ 장 소 : 인터시티호텔
- ☞ 결의사항
 - ① 이혁목사를 출석시켜 신학사상을 점검하고 지도 감독하기로 하다. 보내온 답변서가 이대위에서 는 조금 우려스럽기는 하나 성실하게 답변하여 차기회의에서 정리하기로 하다.
 - ② 7. 30일(금) 오전 10시 대전에서 전체모임을 가지기로 하다.

(4) 4차 전체회의

- ☞ 일 시 : 2021. 7. 30(금) 10:00
- ☞ 장 소 : 전북신학교
- ☞ 결의사항
 - ① 정동수 씨 건은 총회결의대로 유지하기로 하다.
 - ② 김형민 씨 건은 소속 교단으로 돌려보내기로 하다.
 - ③ 이혁 목사 건은 종료하기로 하다.
 - ④ 강덕섭 씨 건은 소속교단으로 넘겨 조사를 의뢰하기로 하다.
 - ⑤ 퀴어신학의 건은 총회결의대로 유지하기로 하다.
 - ⑥ 노승수, 김병훈 교수 건은 소속교단으로 질의하기로 하다.
 - ⑦ 송명덕 목사 건은 해노회로 돌려보내 권면하되 진리보수를 서약하고 총회, 노회 지도를 받도록 하다.
 - ⑧ 전광훈 씨 건은 발언 내용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까지 신앙적 집회 교류 및 참여금지를 촉구하기로 하다.
 - ⑨ 문동진 목사 건은 노회로 돌려보내 지도를 받게 하다.

2) 임원회의

(1) 1차 임원회의

- ☞ 일 시 : 2020. 11. 20(금)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전북노회장 이민규씨가 현의한 아이랑(유석근목사) 신학조사의 건은 총회임원회 회의록 채택 확인 후 다루기로 하다.
 - ② 경기남1노회장 김종환씨가 현의한 나실인선교회와 연관된 한성노회 장암교회 문동진씨의 신학과 신앙 조사 현의 의 건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엔 104회 보고대로 하기로 재확인하다.
 - ③ 빛의 자녀교회(김형민목사) 이단시비관련 통보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바 회의록 채택 후 다루기로 하다.

- ④ 군산노회장 정진관씨의 사이비 이단의 본 교단 목사 사칭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은 행정적인 안건이기에 총회 임원회에 이첩키로 하다.
- ⑤ 이단대책위원회 담당 직원을 회의마다 참석시키기로 하다.
- ⑥ 기타 안건(자체세미나)은 위원장과 총무, 서기에게 일임키로 하다.

(2) 2차 임원회의

- ☞ 일 시 : 2021. 1. 18(월)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워십 일정을 2월 16일(화)~17일(수)로 가지기로 하다.
(총회장 및 총회임원들의 일정을 맞춰 실시키로 하다.)
 - ② 인터콥 관련 강의를 워십시 실시키로 하다.

(3) 3차 임원회의

- ☞ 일 시 : 2021. 2. 16(화) 15:30
- ☞ 장 소 : 인터시티호텔
- ☞ 결의사항
 - ① 백석 서울강동교회 이단(사이비)연구위원회에서 청원한 큰은혜교회 이단(사이비)에 관한 자료요청의 건은 조사분과위에 맡겨 총회임원회에 보고 후 이대위 결의로 처리키로 하다.
 - ② 빛의 자녀교회(김형민목사) 이단사이비 관련 통보의 건은 연구분과위에 맡겨 총회임원회에 보고 후 이대위 결의로 처리키로 하다.
 - ③ 류광수목사와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한 이단규정해제요청의 건은 전문위원장과 전문위 소속 교수의 자문을 받아 연구한 후 총회임원회에 보고 후 이대위 결의로 처리키로 하다.
 - ④ 홍재덕 목사에서 김대원 목사로의 이대위원 교체의 건은 허락키로 하다.
 - ⑤ 제105회 총회 수임사항의 건 중 이혁목사 관련 건과 강덕섭목사 건과 정동수씨 관련 건은 연구분과로 맡기고 귀어신학, 김병훈, 노승수 목사의 건, 송명덕 목사, 전광훈 씨 관련 건은 조사분과위로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 ⑥ 이대위 워십은 코로나 관계로 참여한 분들에게 1인 1실로 방 배정키로 하다.

(4) 4차 임원회의

- ☞ 일 시 : 2021. 3. 9(화) 12: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김재관 목사를 황한열 목사로의 이대위원 교체의 건은 받기로 하다.
 - ② 자체 세미나 결산의 건은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③ 총회임원회의 요청사항은 참고하기로 하다.
 - ④ 중립교회 당회의 이단 신천지 신문(천지일보) 인터뷰 기사에 대한 총회입장 청원의 건은 절차상 미비로 반려키로 하다.
 - ⑤ 전문위원으로 이역희 목사를 영입키로 하다.
 - ⑥ 총회에서 결의된 현의안들에 대해서는 종전 결의한 것을 그대로 유지키로 하다.



(5) 5차 임원회의

☞ 일 시 : 2021. 4. 20(화)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기독교한국침례회에서 보내온 김형민 목사 자료요청 회신 건은 연구분과 보고 후 처리키로 하다.
- ② 현대종교에서 보내온 세계복음화전도협회 결의 건과 서울수서경찰서에서 보내온 산위의 교회 수사협조 건은 보고만 받기로 하고 다락방 건은 총회결의대로 유지키로 하고 하다.
- ③ 이단세미나의 건은 5월 10일 ~ 11일 제주 동홍교회에서 갖기로 하고, 강사는 위원장과 오명현 목사가 하기로 하다.

(6) 6차 임원회의

☞ 일 시 : 2021. 5. 11(화) 10:00

☞ 장 소 : 제이뷰호텔

☞ 결의사항

- ① 연구비 서철원, 심창섭 교수 30만원씩 지급키로 하다.
- ② 추경 1,500만원 연구비 지급 및 책자 발간비 등으로 청원키로 하다.
- ③ 자체세미나 7월 19 ~ 20일 통영에서 실시키로 하기로 하다.

(7) 7차 임원회의

☞ 일 시 : 2021. 7. 19(월) 17:00

☞ 장 소 : 인터시티호텔

☞ 결의사항

- ① 심창섭 교수 강사비는 30만원을 지출키로 하다.
- ② 연구도서 헌법 및 헌법해설서 구입키로 하다.
- ③ 이대위 연구비 잔액을 신천지 출입금지 스티커 제작키로 하다.

3) 분과회의

(1) 1차 연구분과회의

☞ 일 시 : 2021. 2. 16(화) 22:00

☞ 장 소 : 인터시티호텔

☞ 결의사항

- ① 3월 2일(화) 오전 11시 광주 남부교회에서 소집키로 하다.

(2) 2차 연구분과회의

☞ 일 시 : 2021. 3. 9(화) 13: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김형민씨에 대한 기독교한국침례회의 이단해제의 건은 본 교단 105회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

을 보내고 기독교한국침례회에 김형민씨의 회개내용을 문서로 본 교단에 보내줄 것을 요청키로 하다.

- ② 전북노회가 현의한 정동수씨 이단규정 청원의 건은 105회기 총회 결의 “정동수는 이단성이 있어 보이므로 참여금지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엄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를 유지키로 하다.
- ③ 평양제일노회가 보내온 강덕섭씨의 이단성조사에 관한 건은 연구조사키로 하고 해당관계자를 이대위 연구분과회의에 출석 요청키로 하다.
- ④ 한서노회, 성남노회, 황서노회가 현의한 말씀선교센터(한 책의 사람들) 대표 이혁씨의 구원론 이단성의 신학검증 및 피해조사처리 현의의 건은 해당노회에서 보내온 자료를 이대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연구 검토키로 하다.
- ⑤ 연구분과 다음 회의는 3월 18일(화) 오전 11시 30분 광주 남부교회에서 소집키로 하다.

(3) 3차 연구분과회의

☞ 일 시 : 2021. 3. 26(금) 12:30

☞ 장 소 : 광주남부교회

☞ 결의사항

- ① 2021년 3월 9일(화) 오후 1시 30분 총회회의실에서 모인 제2차 회의에서 다룬 ‘평양제일노회가 보내온 강덕섭 씨의 이단성 조사에 관한 건에 대해 연구조사하고 해당관계자를 이대위 연구분과에 출석요청키로 한 건은 평양제일노회 임계빈 목사의 1인을 출석시켜 자료를 제시 받고 상황을 청취하였다. 본 연구위원회는 이대위 전문위원 중 1인에게 의뢰하여 연구보고서를 받기로 하다.

(4) 4차 연구분과회의

☞ 일 시 : 2021. 6. 14(월) 11:00

☞ 장 소 : 광주남부교회

☞ 결의사항

- ① 심창섭 교수의 이혁 목사에 대한 보고서를 근거하여 이혁 씨를 이대위에 소환하여 청취키로 하다.
- ② 강덕섭 씨에 대한 서철원 박사의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연구분과에서 정리하여 이대위 본 회의에 보고키로 하다.

4) 조사분과회의

(1) 1차 조사분과회의

☞ 일 시 : 2021. 2. 16(화) 22:00

☞ 장 소 : 인터시티호텔

☞ 결의사항

- ① 1항 김포큰은혜교회의 건은 김대원 목사
2항 퀴어신학은 양호영 장로
3항 김병훈, 노승수 목사의 건은 김선웅 목사



- 4항 송명덕목사의 건과 전광훈목사의 건은 최윤영 목사가 맡기로 하다.
- ② 4월 20일(화)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소집기로 하다.

(2) 2차 조사분과회의

- ☞ 일 시 : 2021. 4. 20(화) 13:1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1항 김포큰은혜교회(방춘희 원장)의 건은 백석교단에서 자료를 요청함으로 허락하기로 하고 총회 105회 결의사항을 보내기로 하다.
- ② 쿼어신학은 지난 105회기 신학부 결의사항대로 쿼어신학은 이단이다를 확인하다.
- ③ 김병훈, 노승수 목사의 건은 5월 7일에 다시 모이고 소명기회를 주면서 면담도 추진기로 하다.
- ④ 송명덕목사의 건은 황한열 목사에게 연구기로 하되 본 교단 목사로 정치적 고려도 필요하고 신학적 문제일 가능성도 검토하기로 하다.
- ⑤ 전광훈 목사의 건은 조사가 필요하고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신학적, 교리적 부분만 다루기로 하다.

(3) 3차 조사분과회의

- ☞ 일 시 : 2021. 5. 7(금)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각자에게 맡겨온 수임안건을 금일 보고하고 다음 모임에 완결하도록 하다.
- ② 특히 전광훈 목사 건은 전문위원의 협력을 받아 진행하기로 하다.
- ③ 능동적 순종 노승수, 김병훈 교수 건은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분명한 성경적 근거는 잘못 되었으나 이를 본 교단에서는 보고서대로 채택하되 2명의 교수는 합신 교단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단 정이철 목사 건은 기각요청하기로 하다.
- ④ 송명덕 목사 건은 구원과 구원 후의 생활을 구원의 조건과 규정할 문제를 자료로 근거로 확인하여 추후 보고기로 하다.
- ⑤ 전광훈 목사의 건은 다수의 이단사상이 설교에서 드러났으나 신학자들을 통한 검증과 본인을 만나 확인한 후 잘못을 시인하고 수정하는대로 이대위에서 대처하기로 하다.
- ⑥ 나실인 선교회는 정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이단성을 조사하여 추후 보고기로 하다.

5) 전문분과회의

(1) 1차 전문분과회의

- ☞ 일 시 : 2021. 3. 26(금) 12:30
- ☞ 장 소 : 광주남부교회
- ☞ 결의사항

- ① 예장개혁총회장 김승수씨가 보내온 류광수목사와 다락방전도운동에 대한 이단규정 해제의 건은 4월 20일(화) 오전 11시에 2차 모임 시 심도있게 다루기로 결의하다.

6) 임원 및 분과장회의

(1) 1차 임원 및 분과장회의

- ☞ 일 시 : 2021. 4. 26(월) 13:3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① 총회임원회에서 보내온 정광훈 목사의 건은 자료확보(신학적문제), 전광훈목사의 소속교단에 질의, 5월 7일 조사분과위 모임 시 전문위원들과 위원장, 서기가 참석하여 지도교수들에게 의뢰키로 하고 모든 자료가 준비되었을 때 전광훈 목사를 소환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기로 하다.

3. 사업보고

1) 자체세미나

- (1) 일시: 2021. 2. 16-17
- (2) 장소: 인터시티호텔
- (3) 설교: 총회장 소강석 목사
- (4) 강의 및 강의제목
 - ① 능동적 순종과 관련된 문제들 (서철원 교수)
 - ② 목회현장에서의 이단 대책 (전문위원 이억희 목사)
- (5) 결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비고
총회예산	7,094,560	예배순서비	2,690,000	여비, 순서비, 일비
		강사비	560,000	강의비, 여비
		숙식비	3,255,000	숙박, 조식, 석식(대관료포함)
		인쇄비	385,200	자료집
		행사진행비	204,360	현수막, 간식비
합계	7,094,560	합계	7,094,560	

2) 제주세미나

- (1) 일시: 2021년 5월 10일(월) -11일(화)
- (2) 장소: 제주 동흥교회(박창건목사 시무)
- (3) 설교: 위원장 배만석 목사
- (4) 강사 및 강의제목: 코로나 이후의 이단예방과 대책(이대위 총무 오명현 목사)
- (5) 결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비고
총회예산	2,550,000	여비순서비	1,470,000	임원 및 순서자
		장소사용비	200,000	제주동흥교회
		행사진행비	880,000	숙박비, 유류비, 수고비, 출장비등
합계	2,550,000	합계	2,550,000	



3) 자체세미나

- (1) 일시 : 2021. 7. 19 ~ 20
- (2) 장소 : 인터시티호텔
- (3) 설교 : 부총회장 배광식 목사
- (4) 강의 및 강의제목
 - ① 칼빈의 이단 배척 (심창섭 교수)
 - ② 동방번개 (전문위원장 진용식 목사)
- (5) 결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비고
총회예산	5,156,380	예매순서비	1,960,000	위원 및 순서자 여비, 일비, 순서비
		강사비	800,000	강의비, 여비
		숙식비	2,085,000	숙박, 석식, 조식
		행사진행비	311,380	현수막, 간식비등
합계	5,156,380	합계	5,156,380	

105회 총회 수임사항 연구 최종 보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이단·사이비규정 지침 제3장 이단규정 및 시행세칙 제7조(이단규정 기준) 1. 성경의 가르침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 개인의 판단이나 신학적 견해가 이단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본 위원회 연구조사 보고는 106회 총회 결의로 확정한다.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에서는 105회기 총회로부터 수임 받은 현의안과 재심의 건과 제반 안전에 대하여 연구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1. 본 이단대책위원회에서는 현의안과 재심의 건 등 안전들을 연구분과위원회와 조사분과위원회에 맡겨 연구조사 하여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심도 깊게 연구조사 하였다.
2. 본 위원회는 그 결과에 대한 의견과 요청을 존중하였으며 결론만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3. 본 교단과 교류하고 있는 8개 교단과의 협의에 따라 교단 간 서로 다른 교리를 이단문제로 다를 경우 대 사회적 연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해 교단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하였다.
4.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올린 현의안, 정치적 상황이 개입된 정황이 보이는 현의안, 동일노회에서 상습적으로 올리는 현의안에 대하여 연구조사를 배제하기로 하였다.
5. 105회기 주요 사업으로 제주 이단 세미나를 진행하여 교회의 대응전략을 나누었고 과거의 이단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1. 말씀선교센터대표 이혁 목사 처리의 건

황서노회 현의안으로 말씀선교센터 대표 이혁 목사와 이혁 목사 연관 단체들(한책의사람들 등) 구원론 신학 검증과 이단성 및 피해조사 처리 현의의 건

이혁 목사 처리의 건은 연구분과 수임사항으로 심창섭 교수에게 연구의뢰를 맡겨 보고서를 제출케 하였으며 연구보고서에 의해 이혁목사를 출석시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신학사상 질의서를 통해 답변서를 받아서 최종 총회의 지도에 순응하기로 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결의하다.

결론 : 이혁 목사 건은 종료기로 하다.

2. 쿼어신학 이단 규정의 건

황서노회 현의안으로 쿼어신학에 대한 이단 규정 현의의 건은 조사분과에 배정하여 조사하던 중 105회기 신학부 결의사항이 있어 중복됨으로 아래의 결의사항을 유지기로 하다.

<105회기 신학부 결의 사항>

쿼어신학은 동성에 옹호라는 대단히 잘못된 전제와 성경해석으로 인해 심각하게 성경의 진리를 왜곡한 이단 신학이다. 또한 쿼어신학은 우리 교단이 가르치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의 가르침과 전혀 맞지 않고, 특히 우리 교단 장로교 헌법에서 명백하게 동성애를 전면으로 거부하고 있으므로 동성애를 토대로 형성된 쿼어신학은 명백히 이단이며 철저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쿼어신학을 성경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하여 이를 추종하거나 가르치는 자들과 단체들은 이단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결론 : 총회결의대로 유지기로 하다.



3. 강덕섭 목사의 이단성 조사의 건

평양제일노회 헌의안으로 강덕섭 목사의 이단성 조사 헌의의 건으로

제105회기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이후부터 이대위로 표현함)는 강덕섭 목사에 대한 헌의안을 본 위원회 연구분과에 배당하여 연구보고케 하였습니다.

연구분과는 강덕섭 목사의 건을 서철원 박사(전 총신대학원 조직신학 교수)에게 연구해 줄 것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 연구 분과는 이대위원장으로 부터 수입 받은 강덕섭 목사에 대한 이단여부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상정합니다.

1) 서철원교수의 강덕섭 씨에 대한 연구

강덕섭씨는 성경을 임의로 잘라내 하루에 읽을 수 있게 만들어 성경과 그리스도교를 파괴하려고 한다.

(1) 이단들도 성경본문을 잘라내지 않는다.

이단들도 자기들에게 맞지 않는 성경본문을 성경에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 그대로 두고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만 합리적 해석을 해서 체계를 세웠다.

(2) 자유주의자들도 성경의 초자연적 초월적 사항들은 다 부정해도 성경본문을 잘라내지 않고 합리적인 해석을 해서 자기들의 체계를 세운다.

(3) 강덕섭씨는 성경본문을 임의로 잘라내서 파노라마 성경을 만들었다.⁶⁾

이렇게 성경본문을 절단하는 사건은 2천년 그리스도교 역사에 처음 있는 재앙적 사건이다. 이런 절단된 성경이 출판되는 것을 기필코 막아야 한다.⁷⁾

(4)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본문을 임의로 잘라내는 것은 저주받을 일이다.⁸⁾ 어떤 큰 이단이라도 어떤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라도 성경본문을 절단하는 일은 시도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어떤 절대권력자라도 이런 일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신성불가침이다. 성경을 임의로 잘라내는 일은 저주받을 일이다.

(5) 강덕섭씨는 자기가 만든 파노라마 성경은 다양한 계시를 드러내준다고 주장한다.⁹⁾

6) 2018년 4월 2일 원주 예은교회에서 목회하며 2011년과 2012년 강덕섭 씨의 120시간 강의를 2회 수강한 채교석 목사(☎ 010-5600-0691)의 사실 확인서 (자료 7) 4. 특히 파노라마 성경의 강덕섭목사가 만들었다는 전자 음원 성경[MP3]은 성경을 50% 이상을 삭제(조사, 동사, 형용사를 많이 삭제)한 내용으로 강덕섭목사에게 강의를 직접 듣지 않고 음원 성경을 들으면 오히려 기독교 신앙에 엄청난 혼란이 와서 신앙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강덕섭 씨가 채교석 목사에게 보낸 문자입니다(자료 10). 법원에 제출하는 사실 확인서는 사실에 근거한하지 않을 때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자 성경 MP3가 어디 50% 이상 조사 동사 형용사를 많이 삭제 했습니까, 음원을 들어보면 내용 줄거리에 맥을 잡은 요약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위 사실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채교석 목사의 사실확인서 5. 강덕섭목사가 만든 모든 자료는 자기가 독창적인 자료라기보다 여러 사람의 성경 주석과 도표 자료를 종합하여 자신이 공부한 감리교 교단의 신학과 교리에 입각하여 연구하여 만든 자료로서 독창적인 것이라기보다 여러 자료를 보고 연구한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강덕섭 씨가 보낸 문자입니다. 또한 여러 주석을 참고한 종합이라 했는데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를 확인 바랍니다. 만약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이는 허위가 될 것입니다. 본인이 성경을 연구한 것이라는 강한 인상을 주려는 심정은 이해 하지만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선진들의 수고를 부인 하는 처사입니다. 파노라마 성경은 장 제목이 여타의 제목과 다른 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7) 국민일보 광고(자료 6), 왜 목회자들이 파노라마 성경을 필수코스라 하는가? 본 파노라마 성경은 강덕섭 목사가 편찬한 것으로 검증이 까다로운 대한성서공회의 허락을 받아 출판된 역작이라는 게 관련 교계의 평가다.(국민일보) 그 어떤 성경에 편찬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8) 자료 1,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읽는가? 성경 66권 1189장 31,102절을 가감하지 말고 믿고 그대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신4:2, 신12:32, 마5:18, 마24:35, 눅16:17 눅21:33 계22:19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은 오직 한 주제를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사람을 창조하시고 언약체결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셨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이 유혹을 받아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주자가 되기로 하여 하나님 섬김을 거부한 반역을 감행하였다. 이로써 언약체결 시 선언하신 죽음과 저주가 인류에게 왔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다시 돌이켜 자기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모든 구원조치를 다 하셔서 인류를 돌이키셔서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셨다. 곧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이다. 곧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다. 이 주제 외에 다양한 계시 혹은 주장이 있다는 것은 성경과 그리스도교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자는 교회에서 내어 쫓아야 한다. 이런 자는 목사직을 박탈하고 제명 출교해야 한다.

(6) 성경 파괴는 그리스도교 파괴이므로 성경을 절단하는 강덕섭씨를 정죄함이 마땅하다.

2) 이대위의 결정

- (1) 강덕섭 목사의 주장들을 보면,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구원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이 분명해 보인다.
- (2) 그러나 강덕섭 목사가 만들었다는 전자 음원 성경[MP3]은 성경을 50% 이상을 삭제한 것으로 정통교회가 가르치는 정경론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고대 교리사에서는 신론(神論)과 삼위일체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우리교단의 신학의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먼저 성경론을 시작했다. 장로교 12신조 제1항을 보더라도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本分)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라고 했다. 우리교단의 헌법에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성경 소요리 문답과 성경 대요리문답을 원문 그대로 기재했다. 이는 정치보다도 신학이 먼저이고, 연합보다도 개혁주의 신학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교단은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정한 우리교단의 신학을 조금도 훼손하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호리지차(毫釐之次)가 천리지차(千里之次)가 된다는 말처럼, 지금은 강덕섭 목사의 50% 이상을 삭제한 음원성경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50% 가 감한 성경을 듣는 것을 허용한다면, 후에 기독교는 66권의 정경론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미리 예방을 해야 한다.

결론 : 소속 교단으로 넘겨 조사를 의뢰기로 하다.

4. 김병훈 목사와 노승수 목사의 이단성 조사의 건

경성노회 현의안으로 김병훈 목사와 노승수 목사의 이단성 조사 현의의 건은 조사분과에서 조사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다.

조사분과 회의에서 능동적 순종 노승수, 김병훈 교수 건은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분명한 성경적 근거는 잘못되었으나 이를 본 교단에서는 보고서대로 채택하되 2명의 교수는 합신 교단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단 정이철 목사 건은 기각요청하기로 하기로 하고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결의하다.

결론 : 노승수, 김병훈 교수 건은 소속 교단으로 질의기로 하다.

9) 자료 6, 국민일보 광고, 파노라마 전자성경은 본 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성경 전체를 10~12시간 만에 맥을 잡아주므로 누구나 1일 1독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계시의 다양한 맥이 열립니다.(한국 최정상급 성우 녹음)



5. 송명덕 목사 이단사상 조사의 건

동수원노회 현의안으로 송명덕 목사 이단사상 조사 현의의 건으로 조사분과에 의뢰하여 조사한 후 전체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하다

결론 : 송명덕 목사 건은 해노회로 돌려보내 권면하되 진리보수를 서약하고 총회, 노회 지도를 받도록 하다.

6. 정동수 목사 이단 규정의 건

(제103회) (제104회) 총회결의에 의거 2019년 5월 31까지 지적인 내용을 수정하면 총회의 결정을 해제하기로 하였으나 소속 교단을 거짓 통보하여 기망한 사실과 아직 본 총회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 내용은 기각하고 제102회, 제103회 총회결의를 유지하기로 가결하다.

본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제104회기 총회에서 수임 받은 킹 제임스 유일주의를 주장하는 정동수 씨에 대한 이단성 연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2019년 10월 24일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의 정동수 목사 이단성 해지 연기결정”의 내용으로 입장문을 “합동총회, 부총회장, 이단 대책 위원장” 앞으로 보내왔으며, 동연 12월 5일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이대위원장 앞으로 문서를 보내왔고, 2020년 7월 6일자로 본교단 이단대책위원회 앞으로 탄원서를 보내왔지만 제104회 총회결의를 유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정동수씨에 대한 재심 요청은 허락하지 않고 제 104회 총회 결의대로 유지하기로 합니다. 이유는 제102회기 이대위는 정동수씨에게 2019년 5월 31일까지 이단에서 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관련 내용을 책자들을 폐기처분하고, 정동수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의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서 삭제 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재(2020.7.14.)까지도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05회기 결론

정동수씨에 대하여는 본 교단이 요구하는 대로 실행에 옮겨질 때까지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할 것과 정동수는 이단성이 있어 보이므로 참여금지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엄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 105회기 총회 결의에 따라 “정동수는 이단성이 있어 보이므로 참여금지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엄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를 유지기로 하다.

7. 전광훈 씨 이단 조사 및 처리의 건

〈105회기 결의사항〉

전광훈 목사의 순간적 발언에 이단성이 있었고 이단홍호와 관계가 된 적은 있었지만 아직 명백하게 이단으로 규정하기에는 이르다고 여겨진다. 그의 광적 신앙이 편향된 정치적 성향으로 투사된

면이 있기에 앞으로 계속 예의주시 할 뿐 아니라 그의 이단성 발언을 더 확실히 회개토록 하고 목사로서 지나치게 편향된 정치 활동을 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기로 하다. 그리고 그가 공개적으로 회개할 때까지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모든 집회에 교류 및 참여 자제를 촉구하기로 하다. (단, 한기총과 관련해서는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직을 사퇴하였으므로 한국교회 각 연합기관 통합을 위하여 한기총과 교류를 허락하기로 하다.)

결론 : 전광훈 씨 건은 발언 내용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까지 신앙적 집회 참여금지를 촉구기로 하다.

8. 알이랑(유석근) 신학 조사의 건

신학부에서 이첩한 전북노회장 이민규씨가 혐의한 건으로 조사분과로 배정되었으나 지난 회기 에 연구하여 처리되어 결의사항을 총회가 받음으로 이대위에서는 105회기 결의사항을 그대로 받기로 하다.

(104회) 본인이 잘못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며 앞으로 ‘또 하나의 선민 알이랑 민족’과 관련하여 강의를 일절 하지 않을 것과 목회에만 전념하기로 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경고하기로 보고하니, 교회명칭과 문제되는 부분들까지 변경하도록 해 노회에 지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토록 자구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이대위 105회 결의사항〉

유석근 목사 교회 명칭 변경과 강서노회의 지도사항을 보고 받다.

결론 : 105회 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9. 나실인선교회와 연관된 한성노회 장암교회 문동진 씨의 신학과 신앙 조사 혐의의 건

경기남1노회장 김종환씨가 혐의한 건으로 조사분과에 배정되어 조사 중 나실인선교회와 관련된 것은 104회 이대위 보고가 있어 이대위에서는 104회 결의사항을 재확인하고 한성노회 문동진 씨의 신학과 신앙 조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결의하다.

〈104회 이대위 보고〉

노성태(나실인성경원, 수맥봉, 다우징로드): 아직 본 교단 교회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고, 신중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노성태 선교사에게 앞으로 일어날 사태의 위험성을 주지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기로 하다.

결론 : 문동진 목사 건은 노회로 돌려보내 지도를 받게 하다.



10. 기독교한국침례회 빛의 자녀 교회(김형민 목사) 이단시비 관련 통보의 건

기독교한국침례회 빛의 자녀 교회(김형민 목사) 이단시비 관련 통보의 건은 김형민 목사가 속한 교단에서 '신학검증보고서'를 보내왔으므로 기독교한국침례회로 돌려보내기로 하다.

결론 : 김형민 씨 건은 소속 교단으로 돌려보내기로 하다.

11. 류광수 목사와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한 이단규정 해제 요청의 건

류광수 목사와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한 이단규정 해제 요청의 건은 총회 81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유지하기로 하다.

결론 :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하다.